

1978

성원이 자랑스러운

5대 당당한 총학생회

7월 25일 09:00
이 름 01.

"이제 세상을 뒤집어 보자" 1

×^00^× 5대 당당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00^×

내리보기

*^00^*

여는 글 - 98년 가을, 여자로 산다는 것
소개합니다!

꽃마의 변

만화 - 왜 통남학생회는 없나요?

1999, 여학우가 중심에 선다!

현민이와 정아가 1600여학우에게 드리는 약속
편집후기



5/대/당/당/한/총/여/학/생/회/선/거/운/동/본/부

소개합니다

박현민 (사회과학부 3학년)

1978년 대구출생

대구대동초등학교

산곡여자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졸업

1996년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활동

사회대 역사기행동아리 신문에 활동

신문에 분과장/지도위원 역임

1998 5대 총여학생회

정후보로 입후보



이정아 (경영학부 2학년)

1979년 경기도 성남출생

성남제일초등학교

성일여자중학교

승신여자고등학교 졸업

1997년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입학

경영대 소학회 코스비 활동

코스비 부회장 역임

1998년 5대 총여학생회

부후보로 입후보



현민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고 바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며. 그렇다면, 너는 여자가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될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스물둘.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자인 제 스스로를 인정하고 싶습

니다. 그대 넌 소위 여자답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뭔가 싫지만 어쩔수 없이 세상속에 길들

여지고 싶진 않았습니다. 여자답다는 기준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여자라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상에 대해

조금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이 세상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노력할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여성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x^00^x



정아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술

자리나 모임에서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있는 추근담이었습니다.

선배나 동기들이 어깨에 손을 얹거나 등을 쓰

다듬는 등의 일이 예사로 벌어지고, 제가 옆에 있음을 의식해서 오히

려 더욱 야한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기들이

언제부터인지 술을 자기들끼리만 몽치기 시작했을때는 웬지 모를 배

신감마저 느꼈으며 남자가 훨씬 많은 우리 학교에서 여학우로 살아

가기란 너무 고된일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지내온 것은 아마도 일을 더

크게 하면 나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워질까봐라는 생각에서였으며.. 또

한 이런 생활에 너무도 익숙해져서이기도 할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저 혼자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내 일, 내 언니와 내 친구의 일이고 대부분의 여학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몸소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봤음직한 일입니다.

능력으로써 차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성이

었기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속으로 삭여야만 했던

모든 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여성의 머리로 생각하고 여성의

손과 발로 해결하겠습니다. x^00^x



오세 풍상화방화는 일어나요? *^oo^*



1999, 여학우가 중심에 선다!

여성주의

5대 총여학생회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기존의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자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편견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우
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
닌 소유물이나 장식물로 바라보고, 능력보다는 여자
니까 하는 선입관으로 무시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
습니다. 땅이라는 이유로 그다지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 자기 안의 '여성'이라는 사회적 굴레를
짊어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자다워야 한다는
말로 순종을 강요 당해왔습니다. 똑같이 대학을 나와
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결혼을 해서는 '호주제'의 명
목아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남편이나 자식들을 위한
희생을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모든 여성의 문제
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깊이 느끼고 있는 우
리가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5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여성주의를 정책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5대 총여학생회의 모든 사업의

방향은 여성주의에 입각해
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원칙 하에 기존의 학생회
에서 담보할 수 없었던 학
내 여성문제를 찾아내고,
또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운동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인간
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
지 않는 사회, 여성이 성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으로
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00^*

여성들이 자랑스러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여성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 나 여자다

그동안 우리 여
자들의 특성은 남
성의 시각에 의해
규정지어져 왔습
니다.

'여자답다'라는 말을 통해 여성의 긍정적인 모
습을 암전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못
한 여성을 '여자답지 못한 것'으로 매도하면서 자라
는 동안 교육 받아져 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활
동적인 것이 '남자답다'라고 말해지고, 그런 모습으
로 길러져 왔습니다. 여자들은 '적극적이고 조직적이

지 못하니까'하면서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우리 여자입니다. 여자답다는 것이 곧 나쁜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자답다'라는 기준을 여성의 눈으로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애써 부정하고 남성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그 안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기존의 남성 중심의 문화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작은 일에도 세심할 수 있는 것,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심이나 자연친화적 태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운동은 동성애운동 등 소외받는 사람들의 운동과도 연계할 수 있고, 환경운동이나 봉사활동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00^*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려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단위가 확실하지 않은 총여학생회의 경우는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자랑스럽다는 것,
바로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니같은 학생회

5대 총여학생회는 언니처럼 가깝고, 편한 학생

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회가 되기 위해 몇가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여학우들만의 캠프나 나눔의 집 방문 등을 모티브로 한 기행단 활동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우들 곁에 친근하게 다가서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설문조사 활동, PC통신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와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00^*

5대 총여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
학우들에 의해 꾸려지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lways with you

5대 총여학생회의 모든 사업은 지속적이고 일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학생회가 단편적이고 이벤트식의 행사로 학우들에게 학생회를 알려내는데 그쳤다면 5대 총 5대 총여학생회의 사업은 꾸준히 학우들 곁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주대 여학우 내에 뿌리내렸던 총여학생회를 더욱 힘있는 조직으로 세워내는 출발점을 5대 총여학생회로 삼고 앞으로의 여학생운동의 기틀이 될 만한 사업을 마련하고 꾸준히 활동할 것입니다. *^00^*

학생증을 만듭시다!

학생증을 안 데려오시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증을 분실하신 분들은
아주 서비스 센터에
사진 한 장과 3000원을 내면
즉석에서 학생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5/대/당/당/한/총/여/학/생/회/선/거/운/동/본/부

평생미와 정아가 1600 여학우에게 드리는 약속

성폭력근절을 위한 사업

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

- 학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더라도 지금까지는 성폭력을 규제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성폭력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권력 관계가 개입된 사회적 문제이므로 개인 합의나 동의에 의해서 해결될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8천 아주인의 올바른 성의식을 기반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② 성폭력 전문 상담원 채용

-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학내에는 어디 마땅히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두어 심리적인 위안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성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성폭력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관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대에 들어온 학우라면 모두가 성교육에 접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이야기를 하여 '대 학생들과 진로' 수업시간에 성폭력 관련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사업

① 가로등 증설

늦은 시간 학교를 돌아보면 불빛하나 없거나 있더라도 희미하여 다니기에 불안한 곳이 많습니다. 가로등 증설을 학교측에 요구하겠습니다.

② 여학생 휴게실 관리

현재 학교측에서 입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곤 있으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내 및 타 학교의 실태조사 후 학교 측에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여 정말 가고 싶은 휴게실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학교내에는 여학생 휴게실 이외에는 흡연을 하는 여학우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공간 문제도 해결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③ 여성용품 자판기 관리

각 건물 화장실에 설치된 생활용품을 파는 자판기를 이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하기가 매우 번거롭습니다. 자판기의 관리, 운영을 외부업자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측의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요구하여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④ 사물함 배분

학교측에서는 수요조사 후, 학생들의 수요만큼 사물함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어 사물함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겠습니다.

다양한 행사들

① 여학우만의 캠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으로 살아온 경험, 여성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 이것을 생산적으로 풀어내어, 서로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것은 물론 여성임이 자랑스러운 자비를 얻겠습니다.

② 주제별 기행모임을 마련하겠습니다.

종근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나눔의 집' 방문 및 '수요집회' 참여, 기저층 여성들의 '심터' 방문 등 우리 사회에 있는 여성문제를 직접 느끼는 기행이나 페미니스트 카페 방문이나 여성 탁구공 공연 및 연극 관람 등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써 여성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행을 마련하겠습니다.

③ 여성문화제를 열겠습니다.

여성문화제는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말하기 꺼려했던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함께 얘기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입니다. 다른 문화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④ 여학우를 위한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이제껏 체육대회에서는 여학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행사를 지켜보거나 응원을 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이 체육을 싫어해서라기 보다는 행사 자체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5대 총여학생회에서는 여성들이 즐길 수 있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여성성을 발견할 수 있는 종목들로 체육대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대생 취업

① 여대생 취업에 관한 정보 제공/교류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이 훨씬 어려운 여학우들이지만 취업에 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타학교나 기관에서 배포된 자료를 배치하고 강연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학우들의 정보교류모임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학생회/학우 하나되기

학생회는 언제 낫설고 다가가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나 5대 총여학생회 만큼은 언니같이 친구같이 편안한 총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① 대화 창구 마련

5대 총여학생회는 알림식의 사업보다는 1600여학우와의 대화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게시판 활용 및 PC통신 활동을 활발히 하여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② 설문 조사 활동

학내 전반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여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5대 총여학생회선거

11월 18/19일(수/목 이틀간)

이른 9시 ~ 늦은 6시

각 단대별 투표구에서 진행됩니다.

학생증을 반드시

가져오세요!

여성임이 자랑스러운

5/대/당/당/한/총/여/학/생/회/선/거/운/동/본/부

